



김종열 | 사무국장
(사)한국조경수협회 경기충주지회

조경수의 재배기술(배롱나무)

품명	배롱나무
과명	부처꽃과
학명	<i>Lagerstroemia indica</i>
개화기	7~9월
열매결실	10월

배롱나무는 꽃이 오랫동안 피어있어 백일홍 나무라고 하며 남부수종으로 우리 주변에서 특히 여름철에 흔히 볼 수 있는 꽃이 아름다운 조경수입니다.

1.나무이야기

중국 남부가 원산지인 배롱나무는 다른 수종의 꽃이 거의 없는 여름철에붉게 물들어 관상 가치가 뛰어나며 키가 약 5m 정도 자라는 소교목입니다.

나무껍질을 손톱으로 긁으면 잎이 떨린다고 하여 “간지럼나무”라고도 합니다.

껍질은 연한 붉은 갈색이며 얇은 조각으로 떨어지면서 흰무늬가 나타납니다.

잎은 타원형이나 계란을 거꾸로 세워 놓은 모양이며 잎 한쪽 면은 윤기가 나며 뒷면은 잎맥에 털이 나며 가장자리가 맛밋합니다.

꽃은 7월~9월에 걸쳐 붉은색으로 개화하며 가지 끝에 원추(圓錐)꽃 차례로 달립니다.

흰색 꽃을 피우는 것을 흰 배롱나무(*L.indica* for.

alba)라고 하며 붉은꽃 보다 속성수이며 수고 또한 10m까지 자랍니다. 흰꽃은 향기와 꿀이 있어 여름철 밀원 식물로도 인기가 대단합니다. 꽃은 지혈, 소종의 효능이 있어 한방에서는 월경과다, 장염, 설사 등의 약으로 쓰입니다.

열매는 삭과(蒴果)로서 타원형이고 10월에 익으며 보통 6실이나 7~8실인 것도 있습니다.

2.번식

배롱나무의 번식은 종자번식과 영양번식으로 하고 있으나 종자번식 한나무는 뿌리의 활육이 좋지 않아 주로 삽목으로 번식을 하고 있으며 삽목은 봄 삽목과 여름 삽목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봄 삽목은 3월 하순~4월 초순에 자란가지 중에서 연필만한 굵은 가지를 골라서 15cm~20cm의 길이로 잘라서 꽂으면 활착이 아주 잘 됩니다.

여름 삽목은 7월 중순~8월 초순경 그해 봄에 자란 가지를 15cm 길이로 잘라꽃으면 활착이 잘 됩니다. 특히 삽수를 자를 때는 예리한 칼이나 가위로 단번에 자르는 것이 중요하며 땅에 꽂히는 부분은 비스듬히 잘라야 칼로스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뿌리부분에는 발근촉진제를 윗부분에는 파라핀처리를 하면 활착율이 향상됩니다. 삽목이 되어 가지가 나면 그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3. 생육특성

배롱나무는 천근성이므로 물빠짐이 좋고 비옥하며 중성토양을 좋아합니다.

이식 시기는 3월 하순~4월 중순이며, 묘목을 이식 후에는 반드시 부목을 설치해야 하며 이식한 당년에는 시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다음해부터는 휴면기에 퇴비와 복합비료를 섞어서 밑거름으로 시비하면 여름철 개화기에 꽃색깔이 화려하며 개화기간이 연장됩니다.



4. 전정

배롱나무는 맹아력이 강하기 때문에 전정은 어떠한 굵기와 어떠한 부위에 잘라도 괜찮습니다. 일단 나무의 지하고와 모양이 형성 되고나면 1년생 가지는 매년 반복해서 잘라줍니다.

어린묘목은 가지 뺀음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특히 어린 묘목일 경우는 우선 본인이 원하는 높이로 키를 키우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키가 일정 높이가 된 이후부터 본인의 취향에 맞게 수형을 만들면 되며 배롱나무의 수형은 마음대로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기로수의 멋있는 풍경

5. 병 해충

배롱나무의 병 해충은 먼저 흰가루 병이 가장 흔히 발생하는 병해이고 두 번째가 깍지벌레류 및 그을음병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충해로는 노랑쐐기벌레, 흰독나방, 알락하늘소 등이 잎을 가해하여 수형을 훼손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제로는 흰가루 병은 봄에 새순이 나오기 전에 석회유황합제를 1~2회 살포하고, 여름에는 만코지수화제(다이젠엠45), 베노밀수화제(벤레이트), 지오판수화제(톱신엠) 등을 살포합니다.

깍지벌레는 겨울철에 기계유유제나 석회유황합제를 뿌리고 6월 중순에 메티타티온유제(슈프라 사이드)를 1주 간격으로 2~3회 살포하면 그을음병과 함께 방제됩니다.

노랑쐐기벌레, 흰독나방, 알락하늘소 등은 발생시 페니트로티온유제(스미치온), 사이퍼메트린 유지(피레스)를 1주 간격으로 2~3회 살포하면 방제됩니다.



수형이 잘형성된 모습